

직종에 따른 여성 취업자 임금 결정 요인 분석

이 성 립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정복지전공 조교수)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임금 수준이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인적속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임금상의 성별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과 남성은 임금수준과 관련된 주요 요인이 각각 다름을 시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임금결정 회귀식을 추정함으로써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여성 노동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토대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직업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이 다르고 임금차이가 존재함에 착안하여 관리 및 전문직, 준전문직 및 기술직, 사무직을 포함한 사내직과 판매 및 서비스직과 기능 및 노무직을 포함한 현장직의 두 직종으로 구분하여 임금을 추정하였다. 분석자료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2차부터 5차에 걸친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취업 상태에 있는 20세 이상 45세 이하 성인 여성으로 한정하였는데, 연령을 4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45세 이상 여성의 절대다수가 기능 및 노무직, 서비스직에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일관된 직업 분포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석에 포함된 여성 취업자 수는 1999년 1546명, 2000년 1382명, 2001년 1348명, 2002년 1293명이다. 임금회귀식은 Heckman의 2단계 Sample Selection 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고 패널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one-factor random effect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취업 여성의 약 40%는 사내직에 약 60%는 현장직에 종사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사내직 임금이 현장직 임금보다 유의하게 높다. 사내직 종사자 임금 결정에 고용지위, 경제상태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학력, 결혼상태, 거주지역, 전공의 순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자격증 유무, 취업연수, 직업훈련 여부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현장직 종사자 임금은 고용지위, 경제상태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결혼상태, 거주지역, 연령, 직업훈련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학력만이 중학교 학력에 비해 임금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여성의 임금은 학력, 전공, 연령, 취업연수의 생산성과 관련된 개인의 인적인 속성보다는 고용지위와 경제 상태 등의 개인 외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사내직에서는 인적 속성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장직에서는 임금이 인적속성보다는 근로상태와 사회의 경제 상태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경기 호·불황에 따른 임금이 불안정이 큰 것으로 보인다.